

SAFETY NEWS LETTER



| 발행처 |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안전과 | 연락처 | 강주연 주무관
(☎ 053-668-0228)

하네다공항 항공기 충돌사고의 교훈

새해 연초에 일본 도쿄에 있는 하네다공항 활주로상에서 두 항공기가 충돌하는 큰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는 지난 1월 2일 17시 47분경, 홋카이도 신치토세 공항을 출발해 하네다공항으로 돌아오던 일본항공 소속 JAL516, 에어버스 350 항공기가 착륙 직후 활주로 약 3,000피트 지점에서 이륙 대기하고 있던 일본 해상보안청 항공기인 DHC-8 쌍발 터보프롭 항공기를 추돌하며 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공개한 관제탑과 항공기간 교신기록을 보면 관제탑은 해상보안청 항공기에게 활주로 진입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활주로 진입직전 유도로까지 이동 인가를 주었으나, 해상보안청 항공기 조종사가 활주로에 진입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사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사고방지대책은 무엇 일까요? 우선, 인적요인(Human Factor)에 의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위협(Treat)와 에러(Error)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람은 서두름 증후군이나 확증편향에 빠지면 인지적인 기능이 저하되고, 터널비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종사·관제사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를 관리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한 Resilience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본부는 인적오류로 인한 안전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관제사 비정상 상황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3년 안전성과 모니터링 결과

	분리최저치 미확보	ACAS RA	공역안전도	경감조치 이행률
목표치	0.052건 /10만 관제량당	0.052건 /10만 관제량당	5.0×10^{-9}	96.2%
결과	0.256건 /10만 관제량당	0.064건 /10만 관제량당	0.09×10^{-9}	100%

'23년에 우리본부는 총 156만여대에 관제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목표치를 설정한 4개 안전성과지표 중 2개 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의무보고 75건과 내부자율보고 212건을 접수하였으며, 관제상황인식 부족에 따른 안전장애 발생 시 안전조사를 실시하고, 항공교통업무 안전대책 수립·시행 등으로 안전 수준을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자율보고로 접수된 항공로·접근관제소간 분리기준 상이, 신설 조건부 항공로운영에 따른 비행경로 교차 등 다양한 안전이슈를 발굴하여 개선하였습니다.

'24년에는 팬데믹 이전 항공교통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본부는 리스크에 기반한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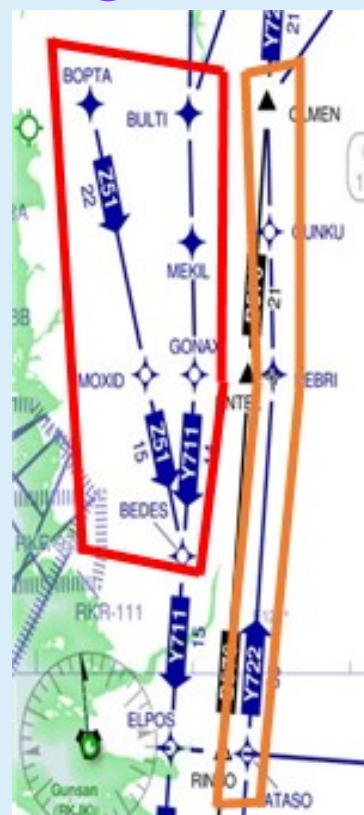
'24년 우리본부 중점관리지역 조정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우리본부는 관할공역 내 공역 구조적 복잡성과 안전이벤트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Hotspot)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입니다.

'23년도 모니터링 결과, 항공안전장애 및 안전이벤트 증가 등 경향의 변동이 확인되어 지정요건 검토 후 '24년 우리 본부 중점관리지역을 조정(총 7개)하였습니다.

① Y711/Z51

② Y722



⑤ Y697



③ PILIT 반경 20N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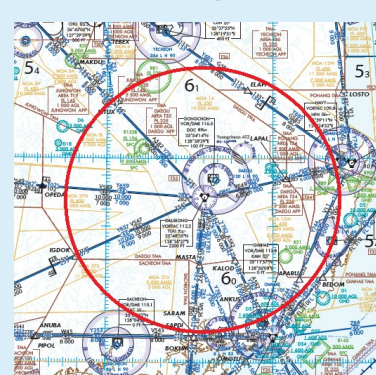
④ KWA 반경 10NM



⑤ Y697



⑥ TGU 반경 40NM



⑦ A593/Y590

